

## [성구]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 계신총회보

발행처: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총회  
주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곡안길 62  
우편번호: 12736  
발행인: 이 용 주  
편집인: 윤 성 천  
전화: 031-768-1980  
팩스: 0303-0944-2936



2025년 12월 15일 (월)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News (Kyesin) • 홈페이지: kyesin.org

제 148호 1

## 제204회 목회연수회



10월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실시된 교역자 산기도 기간중 21일(화) 제204회 목회연수회가 개최되었다.

우신교회 김정경 목사는 교회 부지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개화동으로 이전하게 됨을 설명하고 10월 현재 공정률이 70%이며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첫 예배를 드릴 계획을 보고하였다.

김충용 목사는 신광교회 윤구영 목사의 은퇴로 신광교회 일부 교인들이 오영동 목사가 시무하는 월봉교회로 출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약 1천만원에 해당하는 차량 구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여 의장이 작성 연보의 의견을 말하고 가부를 물어 작성한 결과 약 1300만원이 작성되어 지원하기로 하였다.

총회장 이용주 목사는 노회장들이 노회 시찰을 통하여 각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장인 윤화현 목사는 변승영 전도사, 송호섭 장로, 강태하 목사 사모의 암투병 소식과 유성민 목사의 형편을 말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회무를 잠시 멈추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나은기 목사는 총회 또는 노회적으로 1월 사경회를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연합의 기쁨이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바이다.

기사 최요승 목사

## 총회장 신년사



이용주 목사  
송탄북부교회

2026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단 산하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분야가 흑암을 만난 것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 세속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2026년 새해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실천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며,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로 동행하신다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즐거워하도록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되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와의 눈이 항상 위에 있으므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계약신학연구원 신입생 모집

### 2026-1학기 신입생 모집

계약신학연구원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www.kyeyak.co.kr  
입학 상담: 010-3790-0159  
진로 상담: 010-8781-7471  
신앙 상담: 010-6779-5314

#### 특전

- 등록금 무료
- 온라인 강의: 월화목 저녁 6-9시 20분(ZOOM 사용)
- 졸업자 혜택: 신학석사 장학금 지원, 본 교단 목사 안수, 선교사 파송, 여전도사 사역

#### 과정

	신학연구	성경연구	편목
학기	6학기	8학기	2학기
기준	4년제 학위	고졸 이상	타교단 목회자
공통	수세 후 3년 이상, 당회장(담임목사) 추천을 받은 자		

#### 접수방법

- 이메일(cts1969@gmail.com)
- 우편(서울 종로구 혜화로 3길 6, 계약신학연구원)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양식(입학원서, 신앙고백서)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 최종학력 성적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면접

3월 3일(화) 오후 3시 | 개강: 당일 오후 6시

수도노회

제1회 워크숍 개최 및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2025년 8월 25일 수도 노회는 광흥교회에서 제1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WEA 신복음주의 신학에 대하여 송기진 목사의 주제 발표를 하였고, 2부에서는 그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WEA에 대하여 송기진 목사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 복음주의연맹)는 복음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복음을 변질시키는 신복음주의자들의 단체이다. WEA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 권위를 부인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비평하는 신정통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다. 또한 WEA는 WCC 에큐메니칼 신학과 활동에 편승하여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간다. 더 나아가 WEA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학적 일치를 도모하고 종교개혁의 근본 교리와 가치를 훼손하며 끝내 폐기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 WEA는 이슬람교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게다가 동성연애,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하는 혼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WEA의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더 심각한바, 사실상 로마 가



톨릭과 WCC의 수하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정통주의(칼 바르트의 신학을 바탕으로 함)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노력은 폄하한다. 즉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는 주장이다. 또 성경의 초자연성 즉, 아담과 하와의 실재성, 역사성, 축자영감설을 부인한다. 신복음주의는 복음화를 명분으로 세속적인 문화와 학문을 받아들여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있다. 신복음주의는 가톨릭과도 대화할 수 있다고 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일부 참여한다. 이와 같이 WEA는 신복음주의와 신정통주의의 노선을 걷고 그 모습은 날이 갈수록 복음에서 벗어난 심각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합동측 소속 교회로서 총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와 WEA 서울 총회를 10월 27일에 개최한다고 하니 심히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수도 노회는 다른 보수 교단처럼 WEA 심각성을 연구 토론한 결과 그들의 도모가 무너지기를 기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운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수도노회에서는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오후 3시부터 수도노회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진행하였다.

1부예배는 구왕서 목사의 사회로 이청수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보답, 나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인도하였고, 2부 순서는 신동민 목사의 진행으로 참석한 각 교회가 열심히 준비한 찬양과 악기 연주를 발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광흥교회 유치부에서부터 일산광명교회의 할렐루야 찬양팀(정년층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대로 구성된 찬양팀)까지 찬송을 발표할 때에 그동안 교회들이 연합예배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며 찬양을 준비하였는지를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

1부와 2부 순서를 마치고 광흥교회에서 준비한 저녁식사를 끝으로 처음 개최한 수도노회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다.

기사 조항석 목사

총회

목사 안수를 받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총회와 교회의 사랑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늦게나마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먼저 미려한 저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안수 결심을 갖게 해주신 박황우 목사님과 동들, 그리고 사랑으로 뒷받침해 주신 가락동부교회 원해주신 교단 산하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특별히 귀한 시간 내셔서 안수에 참여하신 안수위원 귀중한 권면의 말씀 되새기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받은 김현우 목사에게도 주님의 은혜 안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안수를 통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전하는 복음 사역에 헌신하기를 결심하며 소망합니다. 미력하나마 하나님께서 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종이 믿음과 사명의 길을 흔들릴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기도를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송탄북부교회

‘진돗개 전도’ 박병선 장로, 특별 전도 집회 인도

본 교단 산하 35개 교회가 연합하여 지난 2025년 11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송탄북부교회(이용주 목사)에서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를 강사로 특별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총 210명의 성도가 참석해 침체된 전도의 열기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집회 말미에는 참석자들이 앞으로 전도하기로 한 대상자를 합산한 결과, 총 251명이 전도대상자로 작성되었다. 이는 단순한 결심을 넘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께 인도하겠다는 신앙적 헌신의 고백이었다.

박병선 장로는 한국교회에서 ‘진돗개 전도왕’으로 널리 알려진 전도자다. 믿기 전에는 아내의 신앙을 폄박하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전도의 불길이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간증했다. 그는 첫 예배 참석 당시 빈자리를 바라보며 “저 자리를 제가 전도로 채우겠다”는 서원을 드린 후,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을 교회로 인도했다.

그의 별명 ‘진돗개 전도왕’은 “한 번 물

면 놓지 않는 진돗개처럼 전도 대상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의 전도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한 영혼을 위해 수개월, 수년이라도 찾아가고, 섬기고, 기도하며 끝까지 인도하는 끈질긴 전도의 실천은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도전을 주었다.

이번 집회에서 박 장로는 자신이 실천한 ‘진돗개 전도법’을 소개하며,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의 결실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그의 간증과 전도 비전을 통해 다시금 전도의 사명을 굳게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 윤성천 목사

### 제주광흥교회

## 1주년 감사 사경회를 갖다



제주광흥교회는 2024년 10월 8일 제주도 한경면 노을해안로 982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 그 동안 제주광흥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경회를 열기 위해 고석남 목사님께 말씀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흔쾌히 허락하여 주셔서 2025년 10월 14일(화) 저녁 시간부터 17일(금) 오전 시간까지 “존귀한 성도의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과 창세기를 본문으로 사경회를 하였습니다.

마침 전남 노회의 제주 분노회 시찰 기간과 연결이 되어서 전남 노회장 이기환 목사를 비롯해 다섯 목회자가 전남 노회에서 참석하였고, 전남 노회 소속의 제주 분노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였고, 유준광 목사가 섬기던 광흥교회 담임 구왕서 목사도 바쁜 와중에 이를 참석하여 작은 교회를 가득 채우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석남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성도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전하시면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설교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하고,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행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이는 사경회는 처음인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주광흥교회는 사경회를 통해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유준광 목사

### 임학성광교회

## 장로 장립 예배



2025년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밤예배 후에 장로장립식을 거행했다. 총회장목사님과 교단 산하 여러 목사님들, 본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재구, 이상규 두 안수집사

님이 성광교회 시무장사로 추대되었다. 은혜 가운데 장립식을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사 김덕용 목사

### 양동제일교회

## 성전 수리 감사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동제일교회는 2025년 7월17일 목요일 오후1시30분에 성전수리의 기쁨으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담임목사 고상식목사의 인도로 찬송가 15장을 부르며 예배가 시작 되었고 이어서 (강원노회장,덕평교회) 석진태목사가 대표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봉독은 스가랴 4장 6~10절(신정교회) 이정행목사가 말씀봉독을 하였고, 이어서 특송은 "그의 빛 안에 살면" 담임목사 고상식목사, 김희숙사모, 가락동부교회 김영관집사, 최정아집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이날 설교는 (계신증경총회장, 가락동부교회) 박항우목사가 "생명의 능력으로 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축

사는 (안성광야교회) 김준호목사, (강원노회 송정교회)나은기목사가 해주었고 양동제일교회 장영찬 장로가 리모델링 재정 보고를 하였습니다.

양동제일교회 고상식 목사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만 리모델링 될 뿐만 아니라 양동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리모델링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라진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각 기관들이 살아나며 양동지역을 섬기는 리더십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 찬송가1장과 (증경총회장 신정교회원로) 정양근 목사의 축도로 은혜로운 예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기사 고정판 목사

### 백양교회

## 장로 은퇴 및 장로 임직 감사예배



2025년 10월 26일 오후 6시 30분, 백양교회 본당에서 장로 은퇴 및 장로 임직 감사예배가 은혜 가운데 거행되었다.

예배는 이청수 담임목사의 인도로, 수도노회 회계 신동민 목사가 기도, 서기 김명진 목사가 성경봉독을 하였다. 이어 바이올린 윤성원, 첼로 윤혜원, 피아노 이지성의 특별 연주 '은혜'가 있었다.

설교를 맡은 구왕서 목사(수도노회 노회장)는 "성령이 감독자로 세우신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마음으로 섬기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며, 새롭게 임직 받는 장로들에게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의 사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권면했다.

이날 은퇴 장로로는 오랜 기간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해 온 하영춘 장로가 소개되었으며, 새롭게 임직하는 최원봉 장로, 구연봉 장로가 회중 앞에서 믿음의 서약을 했다.

이창욱 목사(증경 총회장)의 안수기도와 안수위원들의 악수례 후 두 임직자는 공식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양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받았다.

이후 총회 총무 김정경 목사의 권면, 유창열 목사와 이유창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교회에서는 은퇴패 및 임직패를, 장로회에서는 회원패를 각각 전달했다.

이정인 목사의 축도로 은퇴와 임직의 은혜로운 예배가 깊은 감사 속에 마쳤다.

기사 윤성천 목사

### 순천평화교회

## 창립 35주년 기념과 장로 임직 감사예배



1990년 5월에 3가정이 모여 지하에서 창립한 순천평화교회는 35주년을 맞이하여 금번(10월 9일)에 임직식을 총회 임원들과 전호남노회 목사님들의 협력으로 은혜스럽게 가졌다.

장로장립: 김신광, 김신일  
안수집사: 김신영, 이현수, 정금균, 최진영  
권사취임: 김강심, 김연주, 서길례

기사 고재승 목사

2며



가운데 자격이 없  
를 받게 되었습  
| 인도해주신 하  
3한 기도와 격려  
가 동역자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후  
를 드립니다. 특  
위원 목사님들께  
입니다. 금번에 안수  
|| 안에서 진심으

님의 뜻을 따르  
!하는 목자가 되  
!께서 맡기신 사  
니다.  
!들림 없이 걸어  
도를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글 김배환 목사

제일교회

임직감사예배



2025년 11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남서울노회 제일교회 본당에서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안수위원(석진오목사, 김명식목사, 최요승목사, 이재호목사, 전성현목사)으로 노회 목사님들 참여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기사 전성현 목사

위례광명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및 은퇴 감사예배



2025년 11월 30일 주일 오후 2시, 남서울노회 위례광명교회 시은예배실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및 은퇴 감사예배를 드렸다. 안수위원(권병달 목사, 홍한기 목사, 심명석 목사, 최요승 목사, 전성현 목사)으로 노회 목사님들 참여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기사 전성현 목사

송탄북부교회주최

제6회 사모 세미나 성료

“사모! 아름다운 동역자” 주제로 은혜 가운데 개최



제6회 송탄북부교회 주최 사모 세미나가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개최되어 40여 명의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모! 아름다운 동역자”를 주제로, 실제적인 강의와 간증, 나눔의 시간을 통해 사모들의 사역적·정서적 회복을 도왔다.

**1강 - 이명희 사모**  
이명희 사모는 전도는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만남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강조하며, 전도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도전했다.

**2강 - 이희순 사모**  
이희순 사모는 사모들이 익명으로 제출한 현실적 고민들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나누었다.  
미혼 자녀의 결혼 문제, 사모로서의 존중, 목회자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를 다루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3강 - 하귀선 사모**  
하귀선 사모는 폐 기능 15%로 생명을 위협받던 상황에서 금식기도 중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간증을 전하며 사모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사모들의 나눔**  
참석자 소개 시간에는 “1년 동안 기다려 온 세미나”라는 고백과 “참석할 수 없어 보였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간증이 이어져 뜨거운 공감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세미나는 2026년 세미나를 기대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기도로 마무리되었다.  
참석자들은 모든 진행을 헌신적으로 섬긴 송탄북부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기사 이희순 사모

일본선교

타바타그리스도교회 설립 감사 예배



지난 9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타바타그리스도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있었다. 선교지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산하 교역자와 성도 약 60여 명이 참석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교제하였다.

타바타그리스도교회 장진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단립 노조미교회 하성해 목사의 대표기도와, 광흥교회 구왕서 목사의 설교 및 영남노회장 한기삼 목사의 축사, 제일교회 최요승 목사의 봉헌기도, 아야세동부교회 노학희 목사의 축도로 이루어졌다.

광흥교회 구왕서 목사는 계 3:7~13절의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써,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심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였고, 한기삼 목사는 계 3:7절의 말씀으로써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갖추어 쓰임 받으라는 축사로 갈음하였다.

장진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타바타그리스도교회는 JR(일본철도)의 야마노테(山手線)선 타바타(田端)역 근처에 위치하여 타바타그리스도교회(田端キリタ教会)로 명명하였으며, 2025년 7월 6일에 10여 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고, 현재도, 지역민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사 장진규 목사